백상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kcc.org
연중 제 14주일
제 38권 32호 2018년 7월8일

오늘의 묵상

몸 안에 가시를 안고 그 고통을 없애 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한 바오로 사도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누구나 자신을 괴롭히는 약점과 남에게 보이거나 들키고 싶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 믿었기에,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 내가 약한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승이라 하시기에 못 믿어 수궁치 않거나 심지어 고향 사람들 한마음이었으리라 싶지 않은 대목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 수준에 맞추어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는 대목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오늘 그들의 믿음 없음에